



#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한 산업부-국제에너지기구(IEA) 간 협력 강화

- IEA 에너지 효율 분석전문가(Nicholas Howarth) 방한 계기 학술회의(콘퍼런스) 열려
- '22년 한국의 에너지 효율개선율은 전 세계 평균(2%)의 2배인 4% 기록
- 국내외 에너지 효율 관련 이슈 공유 및 정부-IEA 간 협력방안 논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2.22.(목) 오전,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에너지공단, 에너지경제연구원,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'IEA-한국 에너지 효율 학술회의(콘퍼런스)'를 개최했다.

금번 학술회의는 '23.10월 IEA에서 발간한 'Energy Efficiency 2023'의 대표 저자인 Nicholas Howarth 에너지 효율 분석전문가(analyst)의 방한을 계기로, 국내외 에너지 효율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-IEA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Nicholas Howarth 분석전문가는 'Energy Efficiency 2023'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, '22년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은 전년보다 2% 개선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강력한 효율화 정책 추진을 통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은 4% 개선율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. 한편, '23년에는 에너지 수요가 이전보다 빠르게 증가\*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율이 1.3%에 그쳤다고 언급하고, COP28에서 합의한 '30년 효율개선 글로벌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히트펌프와 같은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산하고, 전기차·소형차 비중 확대, 건물 냉·난방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조명 효율기준 강화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
\* '23년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'22년 대비 1.7% 증가, '22년의 경우 '21년 대비 1.3% 증가

이어서, 국내 에너지 효율 정책 소개(한국에너지공단),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비용효과성 분석(에너지경제연구원),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협력 방안(한국에너지공단), 대한상공회의소-IEA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방안(대한상공회의소)에 대한 발표 및 참석자 간 논의가 진행되었다.

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“무탄소 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 확산, 2030 NDC 및 COP28 이행 등 한국과 IEA 간 협력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”이라고 전망하면서, “IEA 출범 50주년을 맞아 국제행사 개최, 공동연구 추진 등 IEA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에너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현철 (044-203-5140)
	에너지효율과	담당자	사무관	최승효 (044-203-5141)

## 1. 개최 목적

- IEA 및 국내 에너지 효율 분야의 전문가 참여 학술회의를 통해 국내외 에너지 효율 관련 이슈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
- IEA 출범 50주년 계기, 정부-IEA 간 협력 확대방안 모색

## 2. 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 : '24.2.22(목) 9:30~11:30 /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
- 참석자
  - (IEA) Nicholas Howarth 에너지 효율 분석전문가(analyst)
  - (한국) 산업부, 한국에너지공단, 에너지경제연구원, 대한상공회의소 등
- 주요 내용
  - IEA 에너지 효율이슈 공유 및 국내 에너지 효율정책 소개
  -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등 정부-IEA 간 협력이슈 논의

## 3. 세부 일정

일정	내 용	비 고
09:30 ~ 09:35	환영사	산업통상자원부
09:35 ~ 10:00	IEA 에너지 효율 이슈 공유	IEA
10:00 ~ 10:15	국내 에너지 효율 정책 소개	한국에너지공단
10:15 ~ 10:30	국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비용효과성 분석	에너지경제연구원
10:30 ~ 10:40	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협력 방안	한국에너지공단
10:40 ~ 10:50	대한상공회의소 - IEA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방안	대한상공회의소
10:50 ~ 11:30	토론(Q&A) 및 폐회	-